

나주시, '해수유통' 영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 박차

하굿둑 수문 개방...최적의 해수유통 방안 점검

영산강 생태복원,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추진

나주시가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해 수립 중인 '해수 유통 종합계획' 중간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계획은 확정되면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금강권역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해 초광역 단위 공동 과제로 제정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1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환경 생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영산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영산강 생태복원'은 지난 1981년 목포 하굿둑 건설 이후 악화된 영산강

생태환경 복원이 목표이다. 나주시가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추진 중인 '5대 선도정책과제' 중 하나다.

해수유통은 매년 반복되는 영산강 녹조현상 등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영산강과 영산호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대로 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제2차 하굿둑 개방이 진행 중인 낙동강과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용역을 완료한 금강의 사례를 거울삼아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최

적의 해수유통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와 영산강위원회는 앞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 사례와 더불어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 등을 통해 목포 하굿둑 개방에 따른 최적의 해수유통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영산강의 지형·기상·유속·수온·염분 등 생태환경과 하굿둑·보 제원, 하구 조위, 하천 수위, 방류량 등 기초자료 수집 분석에 따른 수치모형을 구축하고 해수 유통 결과를 예측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해수유통 시나리오와 관련해 하굿둑 수문 개방으로 해수가 유입될 시 염분 침투 범위, 농경지·양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이날 김익수 금강유역환경포럼 운영위원장은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목 받았다.

김 위원장은 "1990년 완공된 금강 하굿둑은 염해, 홍수 방지와 농·공업 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됐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수질 악화와 토사 퇴적으로 하구생태계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점차 지속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산강과 금강 기수역 복원이 차기 대선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규건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낙동강의 경우 2017년 대선 국



정과제 채택 이후 하굿둑 개방을 위한 예산 투입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복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영산강, 금강 또한 범정

부차원의 생태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대선 국정과제에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대형 농업기계 안전교육...사고 예방 '총력'

농업용 스킵로더·지게차 운전 등 2개 과정 운영



화순군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스킵로더와 지게차 안전 운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영농 규모 확대와 농업 기계화로 대형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하면

서 영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과정이다.

농업용 스킵로더와 지게차 운전에는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와 교육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평소 스킵로더나 지게차 같은 대형 농기계를 운전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교육을 받고 직접 작동도 해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며 "농작업 위험 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지만 안전사고가 나기 쉬운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3t 미만 굴삭기, 지게차의 자격취득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삼계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직매장' 들어섰다

장성군이 지역 농업인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12일 장성군 삼계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새로 열렸다. 지역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장성산

(産)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로컬푸드(local food)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시설이다.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되어 합리적인 가

격에 고품질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장성지역 최초로 개설된 남면 '농협장성군로컬푸드직매장'은 작년에만 1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김순호 구례군수, 'NO! 플라스틱 캠페인' 동참

아이쿱생협, 종이팩으로 만든 생수인 '기쁜물' 전달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13일 아이쿱생협과 함께하는 건강한 농촌

을 위한 'NO! 플라스틱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건강한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로 500만 명 약속을 목표로 아이쿱생협에서 기획했다.

김순호 군수가 동참했으며, 아이쿱생협에서는 종이팩으로 만든 생수인 '기쁜물'을 전달했다.

김순호 군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생수병만 사용하지 않아

도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구례군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함께한 오성수 구례자연드림파크 임주기업체협의회 대 표는 "1인당 1주일간 미세플라스틱 약 2천개를 섭취하고, 90%가 식수를 통해 섭취된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전 군민 자동가입 '군민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11개 보장항목 2000만 원으로 상향...타 보험 중복 수령 가능

담양군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가 상향된다.

담양군은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전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

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의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이다.

이 중 감염병 사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보장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상속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